

이기는 삶

목숨 걸고 혁신하라

그 누구도 그 이상은 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비로소 남다른 성과가 나오게 된다

버룩 여왕으로 유명한 미국 루이지 로스차일드 박사의 버룩 실험은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버룩은 자기의 키의 100배까지 뛰어 오르는데, 이 버룩들을 비커에 담아 두면, 튀어서 밖으로 빠져 나온다. 비커를 유리 뚜껑으로 막아 놓으면, 버룩이 튀어 오르다가 계속 유리 뚜껑에 부딪히기를 반복하다가 조금 지나면 뚜껑에 등이 닿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튀어 오른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뚜껑을 열어 놓아도 버룩은 계속 똑 같은 높이로 튀어 오른다. 등 위에 유리 뚜껑이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인간도 버룩의 속성과 다르지 않다. 고정관념, 즉 사고의 관성이야말로 조직이나 개인을 좀 먹는 압덩어리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하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이 뒤따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 새로운 변화가 그 변화의 대상에게 어떤 편리함을 줄 것인가? 또한 어느 정도의 기대이익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다. 자판기의 전국 일본은 캔 음료의 80% 이상이 자판기에서 소비되고 있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일본은 캔 음료 가격을 100엔과 80엔을 고수했다. 스포츠 음료 포카리스웨트는 당초 캔 가격을 120엔으로 책정했었지만, 실적이 의외로 저조하자, 가격을 100엔으로 낮추었다. "고객이 동전 넣는 동작을 세 번 해야 하니(동전100엔+10엔+10엔)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닐까. 고객이 편리하게 한번 동작으로(동전100엔) 끝내게 하면 어떨까" 이 전략이 주효하여 포카리스웨트는 날개 돌진 듯 팔러나가 업계 부동의 1위가 되었다. 오로나민C는 캔 가격을 계속 80엔을 고수했는데, 고객이 동전 100엔 한 개를 넣고는 캔 음료를 포함하여 세 개를 가져 오니까(음료1개+동전10엔+10엔) 고객으로 하여금 심리적 기대 이익을 느끼도록 하여 이것을 구매로 연결한 것이었다.

아무리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수가 종종 있다. 그러나 만약 성공을 원한다면 그러한 실패도 감내해야 된다. 큰 성공을 바라려면, 더 이상 없을

만큼 큰 성공을 원한다면 더 이상 없을 만큼 큰 실패를 경험해야만 한다.

또한 큰 성공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몰입과 헌신 없이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 그 누구도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비로소 남다른 성과가 나오게 된다. 당연히 회생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회생은 성공을 위한 정당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변모하는 치열한 정보전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보를 모으고 연구하여 그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새로운 변화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도태하게 되고 결국 자멸하고 말 것이다. 발전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고통을 감수하고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여라. 수많은 반대와 비난에 부딪칠 것이다. 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다. 그래서 말한다. 목숨 걸고 혁신하라...*

수업의 요가교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블로블사의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다. 마음 법만 지키면 병에 걸릴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다. 과학을 뛰어넘는 초능력의 참 진리가 마음에 있다.

무아경지에 이르러야, 허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라야 허나님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웃을 수가 있다. 항상 웃으면 복이 온다는 세상 말도 있다. 웃으면 피가 맑아지고, 혈전이 없어져 혈압이 내려가고, 얼굴에 주름살이 안 생기고, 피부가 아름다워지고 예뻐진다. 초초로 웃으면서 요가수련으로 인류 최대 소망을 이루는 영생의 조류에 동참해보시면 어떨까요?

①

②

③

④

주의 : 고개를 뒤로 젖힐 때 현기증이 날 수 있으니 10초 정도만 한다.

동작① 양반자세로 앉는다. 상체를 바로 세우고 복식호흡을 하며 명상을 한다.

동작②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숙여 배꼽을 바라본다. 10초 정지, 3~5회 반복.

동작③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고개를 뒤로 젖힌다. 시선은 하늘을 향한다. 10초 정지, 3~5회 반복.

동작④ 왼손을 오른쪽 무릎 위에 얹고 오른손은 등 뒤 바닥을 짚는다.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틀고 시선은 등 뒤 바닥을 바라본다. 20초 정지, 좌우 각각 3~5회.*

척추 스트레칭

효능 : 척추 마디마디를 다양하게 움직여서 이완과 수축을 하여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단순한 동작만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며 꾸준한 반복을 하면 허리, 등의 피로가 자연스럽게 풀린다.

도덕경 해설

荒兮 其未央哉

황혜 기미양재

이것은 도의 핵심을 논하는 것이 아니지만

전 호에서 다룬 도덕경 20장의 앞부분은 괄점 죽간원본, 백서, 왕필본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이번 호에서 다룬 해석은 후반부 백서, 왕필본에만 있는 내용이다. 비록 같은 장으로 묶여 있지만, 따로 구분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문맥과 흐름이 서로 자연스럽게도 않을 뿐더러 의식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다소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이 내용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비록 완전한 도의 경지(常樂我淨)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통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의 미묘한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에서 멀어진 인간의 삶이란 과연 정확히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 난해한 문제를 한마디로 간단명료하게 정의한다면, 바로 나와 다른 모든 것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다 다르게 보는 데서 오는 '이질감, 분별심, 공포심과 유한한 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인간의 삶이 편안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아래 문장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상고해 보자.

荒兮 其未央哉(황혜 기미양재): 넓게 본다면, 이것은 도의 핵심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이것은 도와 합일을 이룬 사람의 경지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

衆人熙熙 如享太牢 如春登臺(중인희희 여향태래 이춘등대): 중생(무도자)은 희희낙락하고, 큰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인 것 같고, 봄에 누각에 올라 들떠 있는 듯하다

세상 사람들은 보고, 듣고, 말하고, 행

동하는 것들이 겉으로 볼 때, 항상 희희낙락하고 크게 떠들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我獨泊兮 其未央 如叛兒之未孩(아독박혜 기미조 여영아지미해): 그런데 나는 외로이 홀로 머물러 있고, 마치 갓난 아기처럼 웃지도 못하는 도다

도와 완전히 합일을 이루기 위해 도를 닦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의 인습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하여 웃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라는 것이다.

儻 儻兮 若無所歸(우무혜 약무소귀): 움푹달싹 못하여 돌아갈 곳 없는 것 같다

왜 움푹달싹 못하는 것일까? 까닭은 자신 속의 옛사람(죽을 사람)의 성품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새사람(영생할 사람)으로의 변화를 꾀한 도를 닦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경솔히 아무렇게 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衆人皆有餘 而我獨若遺(중인개유여 이아독약유): 중생들은 모두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나 홀로 유리방황하는 듯하다

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행복한 듯 보이나, 자신은 뭇가에 구수박이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我愚人之心也哉 沌沌兮(아우인지심 아제 돈돈혜): 내가 바보 사람의 마음 그것인가, 혼란스럽구나

도를 닦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달리 마음을 삼가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기에 열핏 보면 바보인 것 같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겨진다.

俗人昭昭 我獨昏昏(속인소소 아독혼혼): 세상 사람은 잘도 밝고 밝는데, 나만 홀로 뭇 모르고 어리숙한 듯구나

세상 사람은 이해득실에 밝아서 거저 나가 이끄는 대로 살아서 표면적으로 볼 때 밝고 환하나, 도를 닦는 도인의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움아매서 죽이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 죄와 허물이 없는 삶을 살려다보니 살고 또 살피는 것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처럼 보인다.

俗人察察 我獨悶悶(속인찰찰 아독민민): 세상 사람들은 잘도 살피는데, 나만 홀로 뭇 모르고 어리숙한 듯구나

세상 사람은 이해득실에 밝아서 거저 나가 이끄는 대로 살아서 표면적으로 볼 때 밝고 환하나, 도를 닦는 도인의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움아매서 죽이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 죄와 허물이 없는 삶을 살려다보니 살고 또 살피는 것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처럼 보인다.

俗人察察 我獨悶悶(속인찰찰 아독민민)

허만옥 승사 칼럼

이 세상 만물을 쪼개고 쪼개면 그것이 인체이건, 밥이건, 뇌파이건 하나같이 미립자만 남는다

6천 년간 마귀가 지배해 오던 어둠의 세상이 점차 밝아지는 것 같다. 세상을 둘러보면 아직 흡족하지 못하지만 도처에 양심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는 것 같다.

어떤 과학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이 세상 만물을 쪼개고 쪼개면 그것이 인체이건, 밥이건, 뇌파이건 하나같이 미립자만 남는다. 즉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안 보이는 물질이나 모든 만물은 미립자가 그 근본적인 구성물자이다. 미립자들은 신(神)의 마음이다. 미립자들은 인간의 마음을 파악한 미립자에는 지능적인 마음이 존재한다. 미립자들은 고유한 주파수를 지니고 있다. 두뇌보다도 몸뚱이의 미립자가 더욱 똑똑하다. 미립자는 절대영도인 -273.15도에서도 온전히 생존한다. 미립자는 모든 정보와 지혜, 사랑, 에너지 등을 지니고 있는 '전지전능'의 존재이며, 따라서 무한 가능성의 알갱이들이다. 미립자간의 거리는 없다. 미립자는 인간이 원하는 모든 정보와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미립자들은 동물이나 식물, 물, 바위 등 어떤 것이든 현실화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마법의 알갱이들이다. 한번 인연을 맺었던 미립자들

들은 지구 반대쪽에 있는 곳에서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영원히 서로 보를 교환한다. 커피잔이나 기계 주변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미립자들은 인간의 마음을 읽고, 그 정보를 고스란히 저장해 두는 기능까지 지니고 있다. 미립자들은 의식적이며, 고도로 지능적인 마음이 존재한다.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분자(分子)를 계속 쪼개면 이 미 물질이 아닌 원자만 남는다. "원자 속에는 핵과 중성자가 있는데 그 주위를 전자가 하나씩의 생명력을 빌려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만물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마귀 육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긴자는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미립자의 정체가 다름 아닌 중성자(中性子), 즉 하나님의 영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진자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소재(所在)'를 도외시하고 막대한 자금으로 깊이 25미터, 높이 15미터, 무게 1만 2천 톤의 거대한 장치를 마련하여 중성자의 비밀을 풀려고 야단을 떨고 있다. 미립자의 세계는 이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886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역곡제단 : (032)343-9981-2	부산제단 : (051)863-6307	마산제단 : (055)241-1161	사천제단 : (055)833-7866	광주제단 : (062)524-4555	神戸祭壇 : (078)862-9522
수원제단 : (031)236-8465	영도제단 : (051)912-7582	진주제단 : (055)745-9228	포항제단 : (054)292-5455	대전제단 : (042)522-1560	下關祭壇 : (0832)32-1988
안성제단 : (031) 673-4635	김해제단 : (055)327-2072	울산제단 : (052)291-1849	순천제단 : (061)744-8007	청주제단 : (043)233-6146	久留米祭壇 : (0942)21-4669
평택제단 : (031)652-6438	충주제단 : 010-9980-5805	진해제단 : (055)544-7464	점유제단 : (063)533-7125	금마제단 : (063)853-6673	岐阜祭壇 : (0584)32-1350
이족제단 : (031)672-6786	대구제단 : (053)474-7900	영천제단 : (054)333-7121	군산제단 : (063)461-3491	橫濱祭壇 : (045)261-6338	大阪祭壇 : (06)6451-3914

神奈川祭壇 : (045)451-3150 London : (0208)894-1075
 Philadelphia : (215)722-2902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